

2016 년 4 월 3 일(주일) 야고보서(18) "선을 알고 행할 줄 알고도"(약 4:13-17)

<도입>

야고보 공동체에는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로 가서 머물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했습니다(13 절).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남기고, 투자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어떤 영적인 삶의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들은 육적인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육적 상태로부터 영적 도약을 할 수 있는 원리를 살피겠습니다.

[1] 자랑: 영에서 육으로 떨어지는 길

16 절. '허탄한 자랑'은 육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데서 옵니다. 육적 삶이란 사람이 인정하는 길 밖에 보이지 않을 때 빠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진지하게 묻고 따르는 것을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라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할까 봐, 하나님 뜻대로 했다가 손해 보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영똥하다고 놀림이나 비난 받을까 봐 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합리성을 추구하며 실리를 추구합니다. 실리 추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준비되고, 잘 짜여져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육적 상태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영적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히 12:5 이하 참고). 징계의 단계(Kendall).

- (1) 말씀으로 일깨우십니다. 말씀으로 양심을 경고/징계하십니다.
- (2)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hopefully).
- (3) 우리가 마치 당신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까지도 슬픔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여전히 욕구(망)가 성취되지 않게 막으십니다.
- (4) 또 하나의 징계 방법은, 그렇게까지 하셔도 돌아오지 않으면 욕망에 넘겨주십니다.
- (5) 하나님께 완전히 무용하게 되며, 바울이 말하는 castaway (버림 받은 자, 고전 9:27)가 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의 부류 중 어디에 속할까요? 4 번입니다.

[2]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고 좋아지니까 자랑스럽고 그 자랑 거리들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를 미래의 청사진을 얻은 것처럼 믿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이것은 엄청난 스케일과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사람은 미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이것을 더 넘어갑니다. 17 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할 능력도 있는데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죄). 본문의 기독 사업가들은 세상이 지탄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문제 없고 오히려 잘 하는 사람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

단지 그들의 생각은 이 정도면 크리스천으로서 욕먹을 짓도 안 했고 평판도 좋으니까 됐다하며 자기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아 취하면서 하나님도 괜찮게 여기시겠지...(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과 종 된 충성심을 어느 순간부터 슬쩍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니다! 여러분은 선을 알고 행할 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알면서도, 남들이 괜찮다 여기니까 이 쯤이면 됐다 하면서 지금의 자기 자리에서 멈추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건 죄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맺음>

오늘 날로 말하자면 평판 좋은 크리스천 직장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더 나아가서는 사역자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선을 알고 행할 줄 아는 자들인데, 살면서 종종 끝까지 하나님께 몰두해야 할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도 하는데, 결국은 자기 삶의 결과로 돌아와서 이제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난 이만하면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내 소명 잘 해냈다고 자랑합니다. 이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룬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차원에 머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끌림과 사모함 때문에 자랑의 차원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지속적인 몰두(신실함과 충성)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육으로부터 영으로의 도약.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칭찬이나 비난도, 성취나 실패도, 자랑이나 부끄러움도, 하나님께 대한 몰두를 깨지 못하는 수준(선의 수준)으로 넘어서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시는 비밀입니다(4:8). 하나님 믿고 이런 일을 해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자랑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으로 늘 정진하는 차원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경이의 비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깨우쳐져서 영적 도약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 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당신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과 은혜의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습니까?
2. 나는 칭찬이나 비난을 들으면 하나님께 몰두(신실함과 충성)해야 할 선한 본분에 대해 흔들리는 편입니까?
3. 내 삶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실하게 몰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조언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신앙 생활을 할까라고 스스로 묻는 편입니까? 그런 태도는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 나쁜지 말씀해 봅시다.